光州日報

제18136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8년 8월 12일 (음력 7월 12일) 화요일

'태극 궁사' 남자 양궁 올림픽 3연패

베이징 올림픽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박경모·이창환·임동현(사진 왼쪽부터)이 시상식 후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별 메달 순위 〈11일 20시 30분 현재〉

순위	국가	금	은	동	합계
1	중국	8	3	1	12
2	대한민국	4	3	0	7
3	미국	3	4	5	12
4	호주	2	0	3	5
5	일본	2	0	2	4

오늘의 빅매치 (12일) 〈한국시간〉

- **수영** 남녀 자유형 200m 결승 박태환 출전 (11시)
- **사격** 남자 50m권총 진종오 출전 (10시)
-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55kg급, 60kg급 박은철, 정지현 출전 (10시30분)
- **하키** 여자부 한국-네덜란드 (21시30분)
- **양궁** 여자 개인전 주현정, 박성현, 윤옥희 출전 (11시)

유도 왕기춘 아쉬운 銀 … 박태환 오늘 2관왕 도전

관련기사 3· 18·19면

베이징올림픽 대회 3일째인 11일에도 금메달 낭보가 이어져 전국민이 열광했다.

이날 한국은 남자양궁이 단체전에서 이탈리아에 승리하며 올림픽 3연패의 위업을 달성해 전날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여자팀과 함께 세계 최강의 실력을 재확인했다.

한국은 이날 베이징 올림픽그린 양궁장에서 열린 남자 단체전 결승전에서 이탈리아를 227-225(240점 만점)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날 여자 대표팀이 올림픽 6연패 쾌거를 달성한 데 이어 임동현(22·한국체대), 이창환(26·두산중공업), 박경모(33·인천계양구청)가 출전한 남자도 2000년 시드니올림픽 이래 올림픽 3연패 위업으로 남녀 동반 금메달의 기쁨을 누리며 초반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금메달 후보로 기대를 모았던 왕기춘(20·용인대)은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다. 왕기춘은 이날 베이징과학기술대 체육관에서 열린 2008 베이징올림픽 유도 남자 73kg급 결승에서 엘누르 맘마들리(아제르바이잔)와 경기에서 경기 시작 13초 만에 한판으로 졌다.

또 사격 클레이종목의 기대주 이보나(전남여고 출신·우리은행)는 이날 여자 트랩 본선에서 55점(만점 75점)으로 참가 선수 20명 중 19위에 그쳐 상위 6명이 나서는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이날 베이징 올림픽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펼쳐진 2008 베이징올림픽 여자핸드볼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작년 세계선수권대회 3위 팀인 독일을 30-20, 10점 차로 크게 이기며 첫 승을 신고했다. 반면 여자농구 대표팀은 이날 베이징 올림픽 농구체육관에서 열린 조별리그 A조 2차전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리바운드 싸움의 절대 열세를 딛고 분전했지만 72-77로 패했다.

한편 12일에는 한국의 메달박스 레슬링이 시작되면서 메달 전선에 힘을 보탠다. 박태환은 11일 남자 자유형 200m 준결승 2조에서 1분45초99를 찍어 2위로 골인, 12일 금메달에 도전한다.

한국은 12일 한국 여자양궁 단체전 우승 주역인 광주체고 출신 주현정(26·현대모비스), 박성현(25·전북도청)과 윤옥희(23·예천군청)가 개인전 메달 싹쓸이 시동을 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주공·토공 통폐합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차 통폐합 가능성

다음달 중순까지 100여개 안팎의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통폐합·기능 조정 방안이 마련된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폐합되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이전 대상인 17개 공공기관 중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3개 기관이 2차 공기업 통폐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9면〉

11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이하 공기업선진위)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이같은 민영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화관광부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등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3개 기관을 공기업선진화 2차 심의대상(통폐합)으로 상정함에 따라 결과가 주목된다. 공기업선진위에서 3개 기관의 통폐합을 결정하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계획이 부분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소 한마리 키우면 100만원 손해본다

전남 한우농가 '한숨'

사료 값 급등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인해 농가에서 한우 한 마리를 키우면 평균 1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남도와 전남지역 축협 및 농협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지역 농가에서 30개월가량 자란 몸무게 600kg 짜리의 수소를 판매할 경우 평균 97만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1등급~3등급까지의 한우를 키워 판매했을 때의 손해액을 평균한 액수다.

1등급 한 마리는 10~2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리지만 2등급은 130~140만 원 손해, 3등급은 150~160만 원의 손해를 기록해 결과적으로 소 한 마리를 기르면 약 100만 원을 밑지는 셈이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한우 마리당 판매가격이 지난해 평균 555만8천 원에서 343만8천 원으로 38%(212만 원) 감소한데다, 배합사료 가격 인상 등으로 경영비가 같은 기간 408만 원에서 439만 원으로 7.8%(31만 원)가 늘었기 때문이다.

한우값 하락의 주요 원인인 배합사료 가격은 국제 곡물 값 인상 및 유가상승에 따른 운송비 증가로 인해 고공행진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미국산 쇠고기도 LA갈비 수입 등에 힘입어 국내 판매가 확대될 양상이어서 전남지역 축산농가들은 최대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배합사료 가격이 10% 더 오르면 한우 한 마리당 손해액은 110~120만 원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이대통령, 정연주 KBS 사장 해임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KBS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들여 정 사장 해임 제청안에 서명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KBS가 심기일전해 방만한 경영 상태를 해소하고 공영성을 회복,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KBS 이사회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어 후임 사장 선임문제를 논의한다.

또 정 사장의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정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정 사장의 소송을 대리인인 백승헌 변호사는 이날 오후 정 사장에 대한 해임 무효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정 사장 측은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KBS 사장은 공무원보다 더욱 엄격하게 신분을 보장받고 있고 현행 방송법에는 임명 규정만 있어서 대통령에게 KBS 사장에 대한 해임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本社辭令

▲ 鄭明彦
광고마케팅국장 직무대리
▲ 曺庚完
독자서비스국장 직무대리
〈이상 2008년 8월 12일자〉

60년 전 광주 모습 ▶ 화보 12면